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예측모형 구축*

김 은 아¹⁾ · 장 금 성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의 경험은 규범적인 발달과업과 유연한 적응이 필요한 전환의 기회이자 도전일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전환점 혹은 광범위한 발달체계 안에서 개인의 삶과 경로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관찰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이다(Fass & Tubman, 2002). 대학생활은 고등학교 생활과 많은 측면에서 다르기에 대학생들에게 적응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은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할 때 가능하다. 적응 문제는 인간 발달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후의 직업 선택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대학생활에 실패할 경우 재기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기에 대학생 시기의 적응 문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희영, 2008).

일단 대학에 입학하면, 학점이수, 시간관리, 다양한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고민 등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대학생들에게는 잠재적인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다(Coffman & Gillian, 2002). 2009년도 전남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보고서(전남대학교 학생지원처, 2009)에 따르면 학업의 어려움, 생활 및 시간관리, 전공, 적성의 불일치 등의 문제로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이 35%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Bronfenbrenner (1979)가 제안한 인간발달의 생태학 이론(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에서는 유기체(Organism)로서 개인과 이를 둘러싼 생태적 환경체계로 크게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를 제시하였고, 유기체의 적응과 발달과정은 여러 환경체계들과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Bronfenbrenner (1979)의 생태체계이론 중 유기체 요인과 미시체계 요인만으로 관련변수들을 구성하여 두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었던 변수의 특성을 성향이나 자질과 관련된 변수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관련 변수로 분류하였다. 즉, 유기체 요인을 간호대학생 개인이 지닌 심리적 안녕감, 대처방식으로 구성하였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유기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인접한 수준의 환경인 미시체계 요인은 부와의 애착관계, 모와의 애착관계, 그리고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로 구성하였다.

먼저 유기체 요인인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Ryff (1989)는 이론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으로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성,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등의 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들을 고려할 때 개인의 내적 능력

주요어 : 간호대학생, 적응

* 이 논문은 제1저자 김은아의 2011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임.

1)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교신저자 E-mail: jangks@chonnam.ac.kr)

투고일: 2012년 4월 27일 심사완료일: 2012년 7월 7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3일

인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의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미시체계 요인인 애착에 대해 Kern, Klepac과 Cole (1996)은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애착은 영아기와 유아기의 애착과는 달리 애착 대상에 대한 신체적 접근의 빈도와 강도는 감소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대상을 안전기지로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애착을 전생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부모와의 애착은 대학생들이 낯설고 새로운 환경인 대학생활에서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간호대학생은 간호학의 특성상 타 과에 비해 과중한 학과공부 뿐 아니라 임상실습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해야만 한다. 따라서 실습과정동안 때로는 환자들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수행하면 어쩌나 하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Seyedfatemi, Tafreshi, & Hagani, 2007). 이미 많은 문헌들에서 실습기간 동안 부여되는 과도한 과제나 업무 등으로 간호대학생이 타과 학생들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임상실습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로 인해 실습이 두려워지고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어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끼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황성자, 2006). 더구나 최근 심각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공에 비해 비교적 높은 취업률 때문에, 전공과정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성의 불일치로 스트레스에 대처하지 못하는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생활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정한 후 Bronfenbrenner (1979)의 이론을 토대로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여 간호대학생이 효과적으로 대학생활을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지도 및 관리전략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설 모형을 구축하고, 실제 간호대학생으로 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모형을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개념을 이론적으로 구성하여 간호대학생

의 대학생활적응 가설 모형을 제시한다.

둘째, 제시된 가설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셋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수정 모형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적응 모형을 설명, 예측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가설적 예측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경로를 검증하는 구조분석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지역적 편중을 줄이기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광주 및 전라남도의 8개 지역에 소재한 3년제와 4년제 간호대학 중 총 10개 학교를 의도 표집한 후 각 학교의 졸업반 학생인 3년제 대학의 3학년, 4년제 대학의 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Joreskog과 Sorbom (1989)은 적정표본크기에 대해 투입변수(q)의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 200명, 13개 이상인 경우에는 $1.5q(q+1)$ 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자 수는 투입변수가 7개로 200명 이상 되어야 하므로 간호대학생 560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도구

●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Cronbach's alpha에 의한 내적 일관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장래 문제와, 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회피중심 대처방식이 .60이하로 낮게 나타나 제거한 후, 신뢰도 .60이상의 요인들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 들어가기 전에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타당성 확보를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표집크기는 문항의 10배가 가장 이상적이며, 적어도 4-5배 이상이어야 한다(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1991). 따라서 가장 문항수가 많은 스트레스의 50문항을 요인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명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표집크기는 531명으로 이상적인 표집 크기인 500명 이상을 확보하여 기준을 충족시켰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의 추출방법으로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고, 요인의 회전방식은 직교

회전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에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 고유치 1.0 이상인 요인만을 선정하였고, 요인적재치가 .5 이하인 항목과 개념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 외생변수

• 애착

Armsden과 Greenberg (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도구(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의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IPPA-R은 청소년들의 부모와 동료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애착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만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들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 애착은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신뢰, 의사소통의 질, 소외로 3개 요인으로 추출 되어 총 설명변량은 56.5%였으며, 총 14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모 애착은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신뢰, 의사소통의 질, 소외로 3개 요인으로 추출 되어 총 설명변량은 55.3%였으며, 총 17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원도구의 부 애착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9, 모 애착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부 애착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2, 모 애착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3이었다.

•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경구, 김교헌, 이준석(2000)이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참여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경험한 사건의 빈도를 0점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에서 3점 '자주 일어났다'로 점수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경제 문제, 이성과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장래 문제, 가치관 문제, 학업 문제, 친구와의 관계 등 8개 요인이 추출 되어 총 설명변량은 64.5%였으며,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개 요인, 총 33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전경구 등(2000)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5~.88의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3~.92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다.

• 임상실습 스트레스

김순례와 이종은(2005)이 선행연구를 기초로 수정·보완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

렇다'까지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개 요인이 추출되어 총 설명변량은 61.9%였으며, 총 18개 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김순례와 이종은(2005)의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9이었다.

● 내생변수

• 심리적 안녕감

Ryff (1989)가 개발한 PWBS(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요인분석 한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Likert식 6점 평정척도로 각 문항은 1점 '매우 아니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까지 점수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수렴에 실패하여,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총 6개 요인의 20개 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김명소 등(2001)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66~.89의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9이었다.

• 대처방식

Amirkhan (1990)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를 신혜진(2002)이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K-CSI)로 변안하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 검증을 거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Likert식 3점 평정척도로 각 문항은 1점 '전혀 하지 않았음'에서 3점 '많이 했음'까지 점수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개 요인이 추출 되어 총 설명변량은 52.3%였으며, 18개 문항이 남았으나 신뢰도 검증 과정에서 회피중심 대처방식 2개 문항을 제거하여 총 16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신혜진(2002)의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67~.90,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이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각 .86이었으며,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0이었다.

• 대학생활적응

정은이와 박용한(2009)이 개발한 대학적응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점수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개 요인이 추출 되어 총

설명변량은 66.1%였으며, 총 15문항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정은이와 박용환(2009)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0~.86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9~.86의 분포를 보였고,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89이었다.

자료 수집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 소요시간과 설문지의 적절성을 파악했고, 도구의 신뢰도도 검증되어 수정 없이 그대로 본 조사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5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자가 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연구대상 해당 학교의 3, 4학년강의에 들어가시는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 허락을 받았고, 대상자에게 설문의 취지와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원하지 않으면 도중에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자세하게 알린 후,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 지역 별로 70부씩 5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연구에 적절하지 못한 29부를 제외한 53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Win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법을 이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18.0을 이용하여 요인부하량과 임계비를 검증하였다. 모형에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검증, χ^2/df , 기초적합지수(GFI), 조정적합지수(AGFI),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 비교적합지수(CFI), 표준적합지수(NFI), 비표준적합지수(NNFI), 원소간평균차이(RMR), 간명표준적합지수(PNFI)를 구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각 연구변수들의 서술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 애착의 하위요인인 신뢰가 5점 만점에 4.21±.73점, 의사소통이 3.65±.76점, 소외가 4.24±.76점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애착점수를 보였다.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경제 문제가 평균

평점이 3점 만점에 .82±.70점, 이성과의 관계가 .53±.76점, 교수와의 관계가 .71±.65점, 가족과의 문제가 .52±.64점, 가치관 문제가 1.00±.72점, 학업 문제가 1.70±.72점, 친구와의 관계가 .27±.46점으로 스트레스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실습교육 환경은 평균평점이 5점 만점에 3.43±.83점,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형은 3.21±.90점, 실습업무 부담은 3.23±.93점으로 중간수준보다 비교적 높게 지각하였고, 대인관계 갈등은 2.23±.93점, 환자와의 갈등은 2.41±.80점으로 중간수준 정도로 지각하고 있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율성은 평균평점이 6점 만점에 3.81±.82점,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3.86±.91점, 개인적 성장은 4.11±.94점, 삶의 목적은 4.04±.87점, 긍정적 대인관계는 4.11±.94점, 자아수용은 3.99±.83점으로 모든 요인들에서 전반적으로 중간이상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을 보였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지지 추구방식은 평균평점이 3점 만점에 2.21±.46점, 문제해결 중심방식은 2.20±.39점으로 비교적 대처방식 점수가 높아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진로 준비는 5점 만점에 2.83±.82점, 학업 활동은 3.34±.84점, 대인 관계는 2.60±.92점, 개인 심리는 3.59±.74점으로 대학생활적응은 전반적으로 중간수준 보다 높았다<Table 1>.

정규분포성 및 다중공선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왜도 3.0, 첨도 10.0 보다 적으므로 배병렬(2007)에 의하면 정규분포를 가정한다고 볼 수 있다<Table 1>. 다중공선성은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회귀모형 진단결과 공차가 .1이하인 변수가 없었고, 상승변량도 10이 넘는 변수가 없었으나 부와의 애착과 모와의 애착 변수 간 상관계수가 정적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r=.76, p<.010$),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두 개념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개념 가운데 하나를 제거해야 하므로, 부 애착을 삭제하였다(배병렬, 2007). 따라서 모든 변수 간 $r=-.09\sim.56$ 의 분포를 보였으므로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됨으로써 구조방정식 모델링 분석을 위한 최종 자료로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Table 2>.

가설적 모형의 검증

●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가설적 모형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chi^2=1625.29(p=.010)$, $df=309$, $\chi^2/df=5.26$, GFI=.78, AGFI=.74, RMSEA=.09, CFI=.78, NFI=.75, NNFI=.75,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Variables	Range	Mean ±SD	Skewness	Kurtosis
Father attachment	1-5			
Trust		4.06±.75	-.754	.119
Communication		3.31±.84	-.128	-.517
Alienation		3.96±.80	-.741	.325
Mother attachment	1-5			
Trust		4.21±.73	-1.110	.988
Communication		3.65±.76	-.330	-.438
Alienation		4.24±.76	-.927	.216
Stress	0-3			
Economic problem		.82±.70	.834	.170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53±.76	1.548	1.672
Relationship with professor		.71±.65	.969	.598
Relationship with family		.52±.64	1.471	1.733
Sense of value		1.00±.72	.584	-.293
Academic problem		1.70±.72	-.107	-.659
Relationship with friend		.27±.46	2.335	5.775
Stress of clinical practice	1-5			
Teaching practice conditions		3.43±.83	-.472	.177
Undesirable role		3.21±.90	-.153	-.420
Burden of practice affairs		3.23±.93	-.124	-.312
Personal relations conflict		2.23±.93	.368	-.538
Conflict with patient		2.41±.80	.316	.066
Psychological well-being	1-6			
Autonomy		3.81±.82	-.027	-.161
Environmental mastery		3.86±.91	-.231	.072
Personal growth		4.11±.94	-.333	.026
Purpose of life		4.04±.87	-.222	-.006
Positive relation		4.11±.94	-.083	-.200
Self acceptance		3.99±.83	-.179	-.029
Coping	1-3			
Social support seeking		2.21±.46	.058	-.625
Problem solving		2.20±.39	.076	-.147
Adjustment to college life	1-5			
Career presentation		2.83±.82	.230	.298
Academic activity		3.34±.84	.036	-.191
Interpersonal relation		2.60±.92	.377	-.119
Personal psychology		3.59±.74	-.047	-.157

<Table 2> Correlation of matrix among major variables

	X1	X2	X3	X4	Y1	Y2	Y3
X1							
X2	.76**						
X3	-.41**	-.44**					
X4	-.12**	-.07	.36**				
Y1	.42**	.48**	-.43**	-.14**			
Y2	.31**	.39**	-.17**	-.14	.52**		
Y3	.28**	.27**	-.26**	-.13**	.51**	.40**	

*p<.05, **p<.01

X1: Father attachment; X2: Mother attachment; X3: Stress;

X4: Stress of clinical practice,

Y1: Psychological well-being; Y2: Coping; Y3: Adjustment to

college life

RMR=.06, PNFI=.66 등으로 일반적인 권장기준치와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아 모형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설적 모형 분석

가설적 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은 모 애착이 높을수록($\gamma_{11}=.20, p<.050$),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gamma_{21}=-.14, p<.050$) 대처방식의 사용정도가 높을수록($\beta_{21}=.52, p<.0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방식은 모 애착이 높을수록($\gamma_{13}=.49, p<.010$) 대처방식의 사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생활적응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gamma_{33}=-.14, p<.050$),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beta_{13}=.53, p<.010$),

대처방식 사용정도가 높을수록($\beta_{13}=.30, p<.0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수정 및 검증

● 모형의 수정

모형수정 방법에는 기존의 잠재변수를 유지하면서 자유모수를 추가하는 방법, 기존의 잠재변수를 유지하면서 자유모수를 고정하는 방법, 그리고 잠재변수의 추가 및 제거를 통한 수정 방법 등이 있다(이순목, 1990).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의 추가 및 제거를 포함하는 수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모형의 수정 과정에서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정도인 인과계수 값이 낮은 관측변수를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수정모형에 사용된 변수를 살펴보면, 외생변수인 모 애착은 신뢰, 의사소통, 소외 등 3개의 관측변수로, 스트레스는 경제 문제,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 3개의 관측변수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실습교육 환경,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실습업무 부담 등 3개의 관측변수로 측정되었다. 내생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은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 등 5개의 관측변수로, 대처방식은 사회적지지 추구 방식, 문제해결 중심방식 등 2개의 관측변수로 측정되었고, 대학생활적응은 진로 준비, 학업 활동, 개인 심리 등 3개의 관측변수로 측정되었다.

●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과 수정모형을 카이제곱 차이검증에 따라 비교해 볼 때, 카이제곱 차이는 1111.18(1625.29-514.11) 이고, 자유도 차이는 172(309-137)로 카이제곱 차이 값이 자유도 차이 값 보다 큰 것으로(1111.18>172) 나타나서 수정모형이 적합도나 간명도에 있어서 상당히 증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과 비교하여 수정모형의 부합도를 살펴보면, χ^2/df 는 가설적 모형에서 5.26이었으나, 수정모형에서 3.75이었다. χ^2/df 값에 대한 의견이 학자들마다 분분하나

2.5이하이면 안정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Arbuckle, 1997). 가설적 모형에서 GFI는 .78이었으나 수정모형에서는 .91이었고, 가설적 모형에서 AGFI는 .74이었으나 수정모형에서는 .87이었고, 가설적 모형에서 CFI는 .78이었으나 수정모형에서는 .92로, 가설적 모형에서 NFI는 .75이었으나 .89로, NNFI도 .75에서 .90으로 RMR도 가설적 모형에서 .06이었으나 수정모형에서 .03으로 나타나 가설적 모형보다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수정모형의 분석

외생변수에서 내생변수로 가는 9개의 경로 중 4개의 경로와 내생변수들 간의 3개의 경로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실습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사이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이론적 계수방향과 상반되게 나타나 제외되었다.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모 애착이 높을수록($\gamma_{11}=.24, p<.010$), 대처방식의 사용정도가 높을수록($\beta_{21}=.50, p<.0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방식에서는 모 애착이 높을수록($\gamma_{13}=.52, p<.0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에서는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을수록($\gamma_{33}=-.12, p<.010$),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beta_{13}=.55, p<.010$), 대처방식 사용정도가 높을수록($\beta_{13}=.31, p<.0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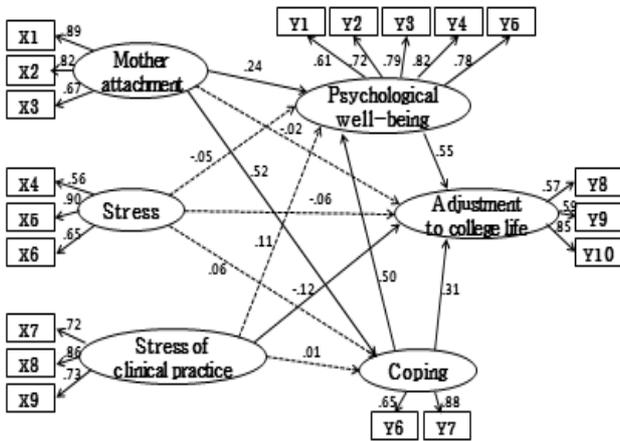
● 수정 모형의 효과분석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모 애착은 직접, 간접 및 총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는 직접, 간접 및 총 효과 모두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직접 및 총 효과만 있었다. 대처방식은 직접 효과와 총 효과가 있었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모 애착,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의 설명력은 48.0%이었다. 대처방식에 대해 모 애착은 직접 및 총 효과가 있었고,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직접 및 총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대처방식에 대한 모 애착,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설명력은 23.0%이었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모 애착은 간접 및 총 효과만 유의하

<Table 3> Comparison of fitness of statistics for the modified model

Indices	χ^2 (p)	df	χ^2/df	GFI	AGFI	RMSEA	CFI	NFI	NNFI	RMR	PNFI
Acceptable value			2~5	≥.9	≥.9	≤.1	≥.9	≥.9	≥.9	≤.05	≥.6
Hypothetical model	1625.29 (p<.001)	309	5.26	.78	.74	.09	.78	.75	.75	.06	.66
Modified model	514.11 (p<.001)	137	3.75	.91	.87	.07	.92	.89	.90	.03	.71



X1: Trust; X2: Communication; X3: Alienation; X4: Economic problem; X5: Relationship with family; X6: Relationship with friends; X7: Teaching practice conditions; X8: Undesirable role; X9: Burden of practice affairs; Y1: Autonomy; Y2: Environmental mastery; Y3: Personal growth; Y4: Purpose of life; Y5: Self acceptance; Y6: Social support seeking; Y7: Problem solving; Y8: Career presentation; Y9: Academic activity; Y10: Personal psychology

<Figure 1> Path diagram for modified model

였으며, 스트레스는 직접, 간접 및 총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직접 효과만 있었고, 심리적 안녕감은 직접 효과와 총 효과가 있었으며, 대처방식은 직접, 간접 및 총 효과가 있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모 애착,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대처방식의 설명력은 62.0%이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기 위해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고, 요인간의 경로 및 영향력을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모 애착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간접 및 총 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Lapsley, Rice와 Fitzgerald (1990)의 연구에서 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상급학년 학생들에게 부·모와의 애착이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일반적 적응과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모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직접적인 상관성 및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모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심리적 안녕감을 경유하여 영향을 주었고, 또한 대처방식을 경유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에 포함되는 분리-개별화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Mattanah, Hancock와 Brand (2004)는 애착과 대학생활적응 사이의 분리-개별화 매개모형으로서, 애착이 청년기의 분리-개별화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갖도록 하여 더 나은 대학생활적응을 가능하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모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 간접 및 총 효과가 유의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김정문(2008)의 연구에서 모 애착과 수준이 높거나 중간인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모 애착이 대처방식에 직접효과가 유의하였는데 이러한 결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
Psychological well-being				.48
Mother attachment(γ_{11})	.24*	.26**	.50*	
Stress(γ_{21})	-.05	.03	-.02	
Stress of clinical practice(γ_{31})	.11*	.00	.11*	
Coping(β_{21})	.50**	-	.50**	
Coping				.23
Mother attachment(γ_{12})	.52*	-	.52*	
Stress(γ_{22})	.06	-	.06	
Stress of clinical practice(γ_{32})	.01	-	.01	
Adjustment to college life				.62
Mother attachment(γ_{13})	-.02	.43*	.41*	
Stress(γ_{23})	-.06	.01	-.05	
Stress of clinical practice(γ_{33})	-.12*	.06	-.06	
Psychological well-being(β_{13})	.55*	-	.55*	
Coping(β_{23})	.31*	.27**	.58*	

* $p < .05$, ** $p < .01$

과는 김광은(2004)의 연구에서 안정된 애착 유형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거나 문제 중심으로 대처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고 있었다. 모와의 긍정적이며 안정적인 관계는 간호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심리인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부들을 증진시켜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하여 대학생활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대처방식의 활용 능력을 증진시켜 적응수준을 높여주는 하나의 안전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모와의 애착이 전 생애에 걸쳐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내면적으로 지녀야 할 능력들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변수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모와의 애착과 관련하여 단지 횡단적인 연구가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종단적인 연구가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안녕감 및 대처방식과 어떠한 직접 및 간접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주현숙, 방희정(2006)은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의 구조모형 검증에서 스트레스와 대처양식들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양식 중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를 유의미하게 매개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었다.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대처방식의 사용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단순 상관관계만으로 설정하여 기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추후에는 단순 상관관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수준을 구분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타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설문지의 내용이 간호학 전공학생들의 스트레스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타과 대학생들에 비해 진로가 안정적이고, 전공별 취업률은 상위 10위 이내로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한국대학 교육협의회, 2010).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반적 특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도구개발 후 대처방식과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간접 및 총 효과는 없었으나 직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에 비교적 점수가 높았던 부분인 실습교육환경과 실습업무 부담이었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했던 김순례와 이종은(2005)의 연구에서 높았던 부분과 일치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교육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연구

들에서 지적한 바 있는 실습 시 부과되는 많은 과제물에 대한 부담과 지나치게 많은 업무 부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가설과 다른 계수방향이 나타나 기각되었다. 김순례와 이종은(2005)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결과를 통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해석이 불가능 했다. 반면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에 속하는 자아존중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한 황성자(2006)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은우(2005)의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대학생활적응을 52.2%로 많은 부분을 설명한 것과 일치하였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가 거의 없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들과 유사한 개념인 분리-개별화,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변수들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논의 하고자 한다. 먼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이은우, 2005)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심리적 안녕감이 대학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에 유기체의 내적 자원인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자아성장이나 자기관리 프로그램 등을 학교생활에서 체험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자신감과 삶의 비전을 높이고, 학생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 행동할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생활에 임하여 그 결과 더 나은 적응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처방식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 간접 및 총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심리적 안녕감을 경유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Wang, Chen, Zhao와 Xu (2006)는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적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을 경유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현숙과 방희정(2006)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양식들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미함을 보고하였다. 이는 개인이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회피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의지나 주변 대처 자원들을 찾으려는 대처 행동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개인 내적 자원을 증진시켜 주어 결과적으로 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처방식 중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식과 함께 사회적지지 체계방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대학의 상담실 운영과 활성화 및 주변의 적절한 가족, 동료나 선후배 교수들의 도움을 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고, 유기체의 적응과 발달과정은 여러 환경체계들과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Bronfenbrenner (1979)의 인간발달생태학 이론에 근거해 유기체를 둘러싼 미시체계 요인인 모 애착은 심리적 안녕감과 대처방식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며, 유기체 요인인 심리적 안녕감 및 대처방식은 직접적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모색과 함께, 유기체의 내적능력인 심리적 안녕감과 대처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기관리능력 및 자아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학생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불어 모 애착이 유기체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들을 규명하여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정한 후 Bronfenbrenner(1979)의 이론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을 검증하는 공분산 구조분석이다.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로와 그 영향력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애착은 심리적 안녕감 및 대처방식을 경유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었고, 심리적 안녕감 및 대처방식 사용도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변수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62.0%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모색과 함께, 유기체의 내적능력인 심리적 안녕감과 대처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기관리능력 및 자아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학생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생활적응과 관련변수들 간 인과적 경로를 설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총체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식체 마련의 계기가 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광은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7.
- 김순례, 이종은 (2005).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1), 98-106.
- 김정문 (2008).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5(6), 197-224.
- 배병렬 (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 신혜진 (2002).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 한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순목 (1990). *공변량 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이은우 (2005). *대학생의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1991). *간호 의료연구와 통계분석*. 서울: 수문사.
- 이희영 (2008). 양육 행동과 대학생활적응: 문화성향의 증대효과. *동북아 문화연구* 14, 337-355.
- 옥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주현숙, 방희정 (2006). 발달심리학회 구두발표: 청소년의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4-285.
- 전경구, 김교현, 이준석 (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316-335.
- 전남대학교 학생지원처. (2009 *학년도 전남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실태조사 보고서*. 광주.
- 정은이, 박용한 (2009). 대학적응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방법연구* 21(2), 69-92.
-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고등교육통계, 대학교육 현황분석 자료집* (2010). Web site: <http://stat.kcue.or.kr/>

- 황성자 (2006).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205-213.
- Amirkhan, J. 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66-1074.
- Arbuckle, J. L. (1997). *Amos Users' Guide, Version 3.6*. Chicago: SmallWaters.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by nature desig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ffman, D. L., & Gillian, T. D. (2002). Social support, stress and self-efficacy: Effect on student's satisfac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4(1), 53-66.
- Fass, M. E., & Tubman, J. G. (2002). The influences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on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Psychology in the School*, 39(5), 561-573.
- Joreskog, K. G., & Sorbom, D. (1989). *LISREL 7: A guide to the program and application*. Chicago: SPSS Publications.
- Kern, K. A., Klepac, L., & Cole, A. K.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3), 457-466.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5), 561-565.
- Mattanah, J. F., Hancock, G. R., & Brand, B. L. (2004).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ediational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213-225.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eyedfatemi, N., Tafreshi, M., & Hagani, H. (2007). *Experienced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Iranian nursing students*. *BioMed Central Nursing*, 6(11). Retrieved November, 13, 2007 from Web site: <http://www.biomedcentral.com>
- Wang, A., Chen, L., Zhao, B., & Xu, Y. (2006). First-year students' psychological and behavior adaptation to college: The role of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US-China Education Review*, 3(5), 51-57.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Kim, Eun A¹⁾ · Jang, Keum Seong²⁾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nnam Techno University, Chonnam, Korea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Gwangju, Korea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related to adjustment of college for nursing students and to develop a collective model for successful prediction and concrete paths of the factors. **Method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May 19th 2010 to Jun 4th 2010. Five hundred thirty-one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fter distributing 560 sheets to senior students in 8 different locations. Data was analyzed with SPSS 18.0 Win program and AMOS 18.0. **Results:** Mother attachment does not have a direct effect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but does effec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ping, which indirect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addition, the mor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ping usage frequency, and the less stress of clinical practice, the higher score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the results,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for the college nursing students' adjustment was 62.0%. **Conclusions:** To improve adjustment to college life, it is recommended to have a direct method of developing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ping improvement program to improve mother attachment. The research is meaningful in a sense that it explains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relevant variables to predict comprehensive dimensional explanation of adjustment of college life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 This article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thesis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ang, Keum Seong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5 Hak-dong, Dong-gu, Gwangju 501-190, Korea
Tel: 82-62-530-4955 Fax: 82-62-225-3307 E-mail: jangks@chonnam.ac.kr